

## 2020 S/S 컬렉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패션 디자인에 따른 메이크업 표현 특성

최지은 · 문윤경<sup>†</sup>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뷰티디자인계열 초빙전임교수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산업학과 부교수<sup>†</sup>

###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make-up based on genderless fashion design in the 2020 S/S collection

Ji-Eun Choi · Yun-Kyeong Moon<sup>\*†</sup>

Invited Professor,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Industry, Sungshin Women's University<sup>\*†</sup>

(2020. 2. 13 접수; 2020. 5. 4 수정; 2020. 5. 18 채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udy the beauty-coordination characteristics of Genderless fashion, which is emerging as a new trend by analyzing the trend in the latest collection and classify the resulting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make-up. Methods and scope of the study were based on collections published in the 2020 S/S season and 35 out of 84 designers with design elements were selected to analyze the garments most likely to be genderle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pression of the genderless derived through this analysis were classified into compromise, androgyny, sensuality, exaggeration, enjoyment, and historicity. Compromise was the highest, and the lowest was for enjoyment of the classifications. The designer's work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expression shows that the pieces by Saint Laurent were the highest in compromise, sensuality, and historicity, and the pieces by Maison Margiela were the highest in androgyny while Balenciaga was the highest in exaggeration and enjoyment. Compromise represented a mixture of discord, such as incongruous bonding and coloring of heterogeneous materials, and androgyny led to the use of silhouettes and colors, with sensuality utilizing see-through material and incision lines allowing for physical exposure. Exaggeration intentionally destroyed the existing concept by breaking the overall balance of the human body through the enlargement of certain parts of the body, while enjoyment showed unexpectedness by destroying the line and sides of the garment. Lastly, historicity was analyzed for its retro design that transcends time and space with regional cultural and period characteristics.

*Key Words:* genderless(젠더리스), make up(메이크업), beauty design(뷰티디자인), fashion collection(패션 컬렉션), genderless fashion(젠더리스패션)

---

<sup>†</sup>Corresponding author ; Yun-Kyeong Moon

Tel. +82-2-920-7614

E-mail : mun406@sungshin.ac.kr

## I. 서론

인류의 모습은 특정 세대의 등장으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2019년 UN통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32.0%를 차지하고 있는 Z세대(Generation Z)의 등장은 경제와 사회문화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SNS와 유튜브 등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네이티브의 주된 세대이며 이러한 소통은 인종, 국적, 성별, 성적체성 등의 한계를 무너트리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경기 침체와 흑인 대통령의 당선, 동성 결혼간의 합법화, 포퓰리즘의 부상 등으로 개개인의 신념에 관한 사고의 형성을 기반으로 인종과 성 평등, 성과 자아 정체성에 관한 자유주의적인 시각을 견지하여 현대의 새로운 규칙을 형성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자유와 개성을 추구하며 사물과 사회가 지니고 있는 개념의 파괴를 일삼는 주도적인 Z세대의 가치관은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젠더(Gender)의 다양한 패러다임인 매스컬리티, 페미니즘, 젠더리스, 젠더 플루이드에 영향을 끼쳤으며 이중 젠더리스는 성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성 정체성으로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을 규범과 규제 없이 통합시켜 새로운 제 3의 성의 세계를 선보임과 동시에 패션과 뷰티디자인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패션과 뷰티디자인에서의 젠더리스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의류 업체의 패션 상품에 관한 연구(유홍식, 2007), 남성복(정수진 외 2018; 안광숙, 2018) 및 여성복(김지혜, 하지수, 2015)의 젠더리스 스타일 표현 특성, 젠더리스에 따른 뷰티 코스메틱의 제품 디자인(이승연, 2017; 이현중, 2019), 성소수자의 패션 디자인(박은혜 외 2017; 김규현 외 2019),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의 젠더 뷰티콘텐츠(표연수, 2018)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로 성 정체성에 따른 패션디자인에 관한 각 분야의 젠더리스의 특성을 파악 할 수 있었으나 컬렉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패션의 디자인적 요소에 따른 메이크업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와 패션과 뷰티를 하나의 콘텐츠로 융합한 뷰티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신 컬렉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패션의 경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메이크업의 조형적 표현 특성을 세분화하여 분류함으로써 새로운 패션 트렌드로 대두되고 있는 젠더리스의 뷰티코디네이션 특성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젠더리스의 사회적 의미를 내포한 패션 스타일의 포괄적인 미적 요소를 제공하고 뷰티디자인에서의 조형적 요소에 관한 다양한 시각화의 모색 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위 연구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로 관련 서적 및 학위 논문, 학회지의 연구자료 등에서 젠더리스에 관한 이해를 선행한 후 이것을 바탕으로 패션정보사이트 보그닷컴(<http://www.vogue.com>)에서 수집한 최신 컬렉션에서 나타난 젠더리스 경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메이크업의 조형 요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 및 범위는 2020년 S/S 시즌에 발표된 컬렉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체 84명의 디자이너 중 선행연구에 나타난 젠더리스의 디자인적 요소를 가진 35인을 선정하여 젠더리스 성향이 가장 대두되는 의상을 분석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패션에 나타난 젠더의 시대적 동향 및 젠더리스의 개념

의복을 착용한다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 욕구와 함께 구체적 욕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문화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옷을 입는 행위는 개인의 개성을 표출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의복에서 표현되어지는 성 정체성은 패션의 특징을 형성함은 물론 현대의 사회문화적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젠더는 한국에서 성(性)으로 번역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섹스와 같이 생물학적 성별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 문화와 관련되어지는 사회적 의미의 성 정체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존머니(John money)는 남녀간의 성적 차이는 생물학적인 것 일뿐 그 외의 것들은 명확한 근거 없이 철저히 역사적으로 부여되었다는 견

해를 나타냈으며 이처럼 젠더는 사회적으로 생성되고 재구성된 것으로 사회문화적 의미로서의 성을 뜻한다.

젠더리스는 '성의 구별이 없는', '중성적인'의 뜻으로 성의 일탈을 나타냄과 동시에 기존의 사회와 관념에 대한 파괴를 일삼는 신세대층에 의해서 전개되어지고 있으며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 또는 신체적 양성성을 부정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동등한 하나의 개체로 인정하는 개념이다. 나아가 젠더리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에 의해 나뉘졌던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을 아무런 규범과 규제 없이 통합시켜 새로운 디자인들을 선보이고 있다.

패션에서의 성에 관한 이분법적 사고는 19세기 후반의 여성인권 운동을 중심으로 발생되었으며 이와 같은 페미니즘적 의복개혁운동을 시작으로 여성의상의 간소화는 물론 기능성과 활동성이 강조된 투피스와 스포츠웨어가 나타났다.

본격적인 젠더 패션은 유니섹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기존의 질서에 반감을 드러낸 히피들을 중심으로 유행하였고 남녀가 완전히 동일한 복식을 공유하는 중성적 이미지의 모드를 뜻한다.

1980년대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패션에서도 해체주의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복식에서 성, 연령, 상황 등에 따른 고정관념이 해체되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앤드로지너스는 대체로 여성이 남성 복식의 이미지를 수용함으로써 좀 더 남성적 특질을 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측면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남성도 여성적 특질을 차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앤드로지너스룩은 남자와 여자가 지니는 특성을 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융합시키는 표현 방식으로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양성적 이미지와 남녀 중 어떠한 성도 느낄 수 없는 중성적 이미지를 나타내어 성을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나아가 21세기는 다원화의 시대로써 기존 가치관의 붕괴, 새로운 관념들의 정립, 성의 혼란과 같은 과도기적 상황을 겪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문화적 남녀의 역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인식의 변화를 통한 성적 한계가 없는 패션의 형태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 2. 젠더리스 패션 연구 분석

박성웅(2019)은 퍼스의 기호학과 젠더리스 패션을 연계하여 젠더리스 스타일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파악함과 동시에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내적 의미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퍼스의 기호학은 표상체, 대상체, 해석체로 분류되며 표상체는 질적, 존재, 범칙 기호로 나누어 디자이너의 표현 기법에 중점을 두었으며 대상체의 경우 자의적 작용에 의한 여성의 남성스러운 스타일, 남성의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표현 의미(도상)와 주제 의미(지표), 그리고 본질 의미(상징)로 분석하였고 해석체는 인간 스스로의 인지의 과정에서 경험을 통한 자기중심적 의미 형성 과정을 완성하는 것을 뜻하며 지시적, 심리적, 사회 문화적 기호로 해석된다. 젠더리스 패션의 지시적 기호는 앤드로지너스 이미지와 파워풀 이미지이며 심리적 기호는 중성적, 양성적 이미지, 그리고 사회문화적 기호는 남녀 평등과 성의 해방, 고정 관념의 탈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젠더리스 패션의 기호적 표현 특성은 자기중심적 사고와 인간 중심적 디자인 욕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현중(2019)은 Gucci 2016, 2017, 2018 S/S 컬렉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패션의 컬러와 소재, 아이템을 조사한 후 메이크업 제품의 이미지를 기획하고 개발하여 새로운 제품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젠더리스 스타일 분석으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팬톤에서 선정한 트렌트 컬러 중 주조색을 차지하는 핑크에 주목하였고, 패션 아이템들의 곡선형 요소, 그리고 의류 소재의 시스루를 선정하여 젠더리스의 성적인 유동성과 중립성을 파악하였다. 이 후 브랜드의 메인컬러를 Pantone 12-1304와 11-0601로 선정하고 브랜드 테마를 '핑크즘(Pinkism)'으로 설정하여 이지 투 언더 스탠드 아이템들을 구성하였다. 젠더리스 패션에 나타난 레이스 시스루를 메인 문양으로 선정하여 핑크 기조를 한 메이크업 제품 케이스를 제작 완성하여 세대와 연령, 성별을 뛰어넘는 젠더리스 뷰티 문화를 도모하였다.

임민정(2018)은 2014-2018년 컬렉션 중 페미니즘을 테마로 한 31개의 컬렉션을 선정한 후 젠더플루이드 이미지를 심층면접으로 분석

〈표 1〉 젠더리스 연구 특성 분석

연구자	연구 주제	특징	
박성옥 (2019)	퍼스 기호학 관점에서의 현대 젠더리스 패션 스타 일 표현 특성 연구	젠더리스 표현 특성	퍼스의 기호학 분류
		- 남성 : 정충성, 양성성, 관능성, 유희성 - 여성 : 과장성, 절충성, 관능성, 유희성	- 표상체 : 질적기호, 존재기호, 범칙기호 - 대상체 : 표현의미(도상), 주제 의미(지표),본질의미 (상징) - 해석체 : 지시적, 심리적, 사회 문화적 기호
이현중 (2019)	젠더리스 스타일을 응용한 Z세대 메이크업 디자인 제 품 이미지 개발 연구	젠더리스 스타일 분석	
		- 핑크 컬러 활용 - 시스루 소재 활용	- 곡선형 요소 - 레이스 소재 활용
임민정 (2018)	페미니즘 테마 패션 컬렉 션에 표현된 젠더 플루이 드 이미지	페미니즘 표현특성	젠더플루이드 이미지
		- 레터링과 그래픽 활용 - 퍼포먼스의 활용 - 남성과 여성 컬렉션의 결합 - 다양성과 신체 긍정의 표현	- 임파워먼트 이미지 - 에이젠더 이미지 - 합리적 이미지 - 프로섹시즘 이미지
표연수 (2018)	미디어엔터테인먼트의 젠 더표현을 활용한 뷰티콘텐 츠 활성화 방안	젠더패러다임	
김지혜 (2016)	현대 여성 컬렉션에 나타 난 젠더리스 스타일의 표 현특성	- 매스컬리니티 - 젠더리스	- 페미니티
		여성 패션 젠더리스 스타일 표현특성	
		- 절충성 - 과장성 - 역사성	- 유희성 - 관능성

하여 페미니즘 컬렉션의 특성과 젠더 플루이드 이미지를 얻어냈다. 패션 컬렉션의 페미니즘 표현 특성으로는 레터링과 그래픽을 활용한 직접인 표현, 퍼포먼스의 활용, 남성과 여성 컬렉션의 결합, 다양성과 신체 긍정의 표현으로 분석되었다. 페미니즘 패션 컬렉션에 표현된 젠더 플루이드 이미지로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 이미지, 에이젠더(Agender)이미지, 합리적이미지, 프로섹시즘(Prosexism)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임파워먼트 이미지는 파워숄더, 오버사이즈 슈트의 패션을 제시함과 동시에 성별의 관한 고정관념을 탈피한 개인의 권한과 능력을 존중하는 이미지이다. 에이젠더 이미지는 파워슈트와 같이 과장된 실루엣을 나타냄과 동시에 허리를 강조한 슬림핏에 꽃무늬 패턴과 프릴, 러플 장식등을 활용하여 남녀의 의상을 각기 다른 성에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합리적 이미지는 상반된 두가지 스타일을 동시에 표현한 것을 의미하며 스타일링에 관한 공식을 허물어 개성을 드러내며 실용

적이고 편리함을 위해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프로섹시즘 이미지는 여성의 신체의 특정 부위의 노출을 페티시 스타일로 표현한 것으로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여성이 표현의 주체이자 사회적 편견에 맞선 새로운 접근법을 유도하는 관능적 이미지를 표현한다.

표연수(2018)는 젠더표현을 활용한 뷰티 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젠더 패러다임을 남성성의 매스컬리니티(Masculinity), 여성성의 페미니티(Feminity), 중성의 젠더리스(Genderless)로 분류하여 방송매체, 엔터테이너, 패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매스컬리니티는 여성스러운 외모와 착한 성품의 여주인공에서 '커피프린스'의 윤은혜와 같은 성의 구분이 모호한 미소년의 이미지의 여주인공과 애니 레녹스와 같은 남성적 여성 엔터테이너의 등장과 함께 톰보이 패션으로 중성 트렌드의 새로운 젠더 표현을 나타내었다. 페미니티는 K-pop에서 나타난 '걸크러시'의 용어의 사용을 시작으로 글레머러스한 여성 엔터

〈표 2〉 젠더리스 디자인적 요소

	남자	여자
아이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킷, 숏 블레이저, 숏 재킷, 테일러드, 벨티드 코트</li> <li>- 블라우스, 레이스 셔츠</li> <li>- 핫팬츠, 부츠컷 데님팬츠</li> <li>- 플리즈 스커트</li> <li>- 리본타이, 미니 넥타이</li> <li>- 로퍼, 샌들, 앵글부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일러 재킷, 테일러드 코트, 슈트, 집업, 스타디움 재킷,</li> <li>- 베스트, 레이스 케이프</li> <li>- 셔츠, 탑</li> <li>- 랩업 슬랙스, 와이드 팬츠, 하이웨스트 벨포덤, 팬츠</li> <li>- 점프슈트</li> <li>- 넥타이, 리본, 페도라, 타이벨트</li> <li>- 옥스포드화</li> </ul>
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ink, Rose quartz, Purple</li> <li>- Gray, Dark gray, Blue, Navy, Ivor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lack, Navy, Strong blue</li> <li>White, Beige, Gray</li> <li>Dark khaki, Brown</li> </ul>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루</li> <li>- 스웨터</li> <li>- 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루</li> <li>- 벨벳</li> <li>- 저지</li> <li>- 메시</li> <li>- 가죽, PVC</li> </ul>
패턴주름 장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트라이프, 프릴, 러플, 플라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무늬</li> </ul>

네이너들의 신체 표현법을 바디 긍정주의로 일컬으며 당당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냈고 패션에서는 과장된 깃털과 꽃 장식, 플리즈 드레스, 트워드 재킷이 나타났다. 젠더리스는 기존 여성의 전유물인 뷰티제품의 광고에 남성 모델 고용에 관한 시도를 엿볼 수 있었으며 뷰티 유튜브로 활약 중인 남성을 예로 들며 동시에 남성의 패션에서 양성성이 부각되는 리본, 러플, 레이스와 핑크 컬러의 조합을 예로 들었다.

김지혜(2016)는 2006 S/S-2016 S/S 컬렉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요소를 가진 브랜드를 선정한 후 여성 패션에 나타난 젠더리스적 표현 특성을 연구하였다. 여성 패션에서의 젠더리스 스타일의 표현 특성으로는 절충성, 유희성, 과장성, 관능성, 역사성으로 나타났으며 절충성은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의 혼합, 부조화스러운 대상이나 이미지의 병치를 통해 표현되었으며 다양한 톤과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하여 이질적인 느낌의 문양과 소재를 혼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성은 재미와 즐거움을 기조로 대칭과 비대칭, 조화와 부조화를 통한 고정관념의 변화를 꾀하여 의외성과 충격으로 표현되었다. 과장성은 부피와 면적을 과도하게 확대한 실루엣으로 표현하여 여성의

신체 구조를 완전히 은폐하였으며 복식 길이의 확대를 통하여 특정부분을 길게 강조하는 방법을 나타내었다. 관능성은 매니시한 의상과 여성의 신체미를 강조할 수 있는 의상을 함께 스타일링하는 방법으로 레이스, 또는 시스루 소재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성은 과거의 전통적 형태를 재현한 의상, 의복과 색상, 문양에서 나타나는 상징적인 의미, 장식적 요소의 활용으로 승마복, 밀리터리 룩과 같은 과거의 특정 복식의 의미에 현대적인 스타일을 가미한 것으로 표현되었다.

### Ⅲ. 컬렉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패션에 따른 메이크업 표현 특성

다양한 매스미디어와 함께 젠더리스가 나타난 패션 및 뷰티의 요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0년 컬렉션의 대표 패션 테마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젠더리스 패션의 경향이 짙은 특정 디자이너들을 우선 선정하지 않고 2020 S/S 전체 컬렉션을 바탕으로 시대와 영역의 한계를 두지 않은 젠더리스 패



〈그림 1〉 Etro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2〉 Ton Ford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3〉 Saint Laurent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4〉 Area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5〉 MM6 (출처: <http://www.vogue.com>)

선의 표현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그에 따른 메이크업의 조형적 요소를 세분화하여 젠더리스에 관한 뷰티디자인의 전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을 종합 분석하여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그 결과 패션에 나타난 젠더리스의 특성은 절충성, 양성성, 관능성, 과장성, 유희성, 역사성의 6가지로 분류 할 수 있었다.

2020 S/S 컬렉션의 사진은 패션 정보 사이트 보그닷컴(<http://www.vogue.com>)에서 젠더리스 패션의 특성이 나타난 35개의 컬렉션으로 선정하였으며 총 139개의 사진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절충성이 나타난 작품은 48점, 양성성은 21점, 관능성은 22점, 과장성은 19점, 유희성은 14점, 역사성은 15점으로 전문가 집단(의류학 관련 석박사 학위 소지자 5명과 뷰티학과 교수진 5명)에 의해서 선정되었다. 2020 S/S에 나타난 젠더리스 표현 특성 중 절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유희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표현 특성에 따른 디자이너의 작품을 살펴보면 절충성, 관능성, 역사성에서 생 로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양성성에서는 메종 마르지엘라, 과장성과 유희성은 발렌시아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 1. 절충성

절충성은 결합과 대조를 통해 상이한 견해, 사상, 이론 등의 본래의 의미를 넘어서 두 가지의 영역이 서로 교류하거나 또는 이를 통하여 새로운 영역을 모색하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현대패션에서 표현되어지는 절충성은 형태와 소재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 중 이질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부조화스러운 대상이나 이미지의 병치, 고정된 배색 형식 없이 다양한 톤과 색상의 사용, 문양이나 질감에 따른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 전통과 현대적인 의복 디자인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하위문화와 고급문화의 조화, 여성적 이미지와 남성적 이미지의 혼합 등으로 각기 다른 요소들을 혼성, 도치하여 애매성이 강조된 다양한 해석적 요인을 주는 젠더리스 디자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에트로에는 허리 라인이 들어가지 않은 박시한 더블 자켓과 오버사이즈의 팬츠로 와이드 핏의 모던 수트에 오리엔탈적 요소의 가디건을 매치하여 모던함과 빈티지의 부조화스러운 대상간의 이질적 결합으로 절충성을 표현했다. 메이크업은 피부톤을 보정하지 않은 뉴트럴톤의 미네랄 라이즈의 질감으로 피부 메이크업을 하고 눈썹은 타고난 형태에 빈 곳만 채우듯 헤어 컬러와 유사하게 처리하였으며 입술도 윤기나는 정도의 모이스처한 립으로 완성했다(그림 1).

톰포드는 유광의 가죽 소재의 브라탑과 무광의 우븐 소재의 오버 솔더 코트, 슬랙스를 매치하여 부조화스러운 이질적인 소재들의 결합으로 핑크하면 모던한 양성성을 나타냈다. 메이크업은 페일톤의 피부표현과 누드립에 매트한 블랙 딥 스모키 아이메이크업을 매치하여 핑크스타일을 표현했다(그림 2).

생로랑은 파워숄더의 더블 블레스티드 자켓(Double Breasted Jacket)과 프릴이 달린 캐주얼한 소재의 데님 셔츠의 매치로 시크하며 캐주얼한,

또는 남성적이며 여성적인 절충성을 나타냈다. 메이크업은 특정 이미지에 편중되지 않고 두 가지의 부조화스러운 대상의 병치를 수용하기 위해 색조를 배제하고 최소한의 피부 메이크업만 한 후 고글형의 볼드한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미니멀한 포인트를 나타냈다(그림 3).

에어리어는 장식이 최소화된 스트레이트한 테일러드 수트에 프린지를 허리에 매치하여 팬츠의 한쪽면에 마치 스커트를 착용하여 모던한 미니멀리즘을 나타냄과 동시에 보헤미안적인 자유로움을 표현했다. 메이크업 역시 오브제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주었으며 한쪽 눈에 큐빅 파츠를 엮어서 눈썹의 라인을 형상화하고 눈 아래 부분에 마치 프린지와 같은 긴 금속 줄을 달아 이질적 요소로부터의 조화를 시도하였다(그림 4).

엠엠식은 셔링의 주름 장식이 들어간 웨딩드레스 탑에 키홀더를 착용한 데님진을 매치하여 로맨틱하며 캐주얼한 룩을 완성했다. 이처럼 하위문화와 고급문화의 조화를 통하여 각기 다른 문화의 경계를 해체하고 풍부한 디자인적 표현을 통하여 젠더의 이미지의 혼합 등을 나타냈다. 메이크업은 매트한 질감과 페일한 톤의 피부와 입술을 연출하고 눈 밑의 다크서클 범주에 핑크 컬러를 매치함으로써 로맨틱하고 캐주얼하며 그로테스크적인 메이크업이 완성됐다(그림 5).

## 2. 양성성

양성성은 기존의 성 고정관념을 없애고 각각의 성에서 나타난 특성을 자유로이 교차시키는 것으

로 하나의 복식 스타일에서 남성과 여성의 의복 형태가 동시에 존재하여 성의 구분이 모호한 것을 뜻한다. 이처럼 양성성은 두 성의 조합과 재구성을 통하여 하나의 융합된 복합적인 디자인의 양상으로 나타낸다.

더로우즈는 직선형의 박시한 셔츠로 신체의 볼륨감과 곡선을 드러내지 않고 최소화하였으며 상의와 같은 소재의 팬츠 역시 스트레이트한 라인의 형태를 띄며 슈즈도 PVC의 소재를 활용하여 깨끗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미니멀리즘 룩을 연출하였다. 메이크업은 색조를 자제한 모이스처 질감의 뉴트럴한 누드 메이크업을 하였으며 특정 이미지에 치우치지 않고 여성성을 최대한 배제한 룩을 나타냈다(그림 6).

루이뷔통은 여성성을 배제한 자켓, 셔츠, 베스트와 와이드 팬츠의 스트레이트 룩을 완성했으며 여성의 곡선미가 드러나는 의상의 실루엣을 모두 제거하여 표현했다. 메이크업은 이목구비를 최대한 깔끔하게 드러낼 수 있는 최소한의 메이크업을 했으며 눈썹을 직선형으로 표현하였고 입술은 혈색감을 주어 입술선이 또렷해보이도록 연출하였다. 헤어는 남성의 클래식한 포마드 헤어 연출하여 남성성을 강조하였다(그림 7).

툼포드는 울블랙 셔츠와 팬츠 그리고 부츠를 매치 하였으며 곡선의 요소를 최대한 배제한 직선적이고 남성적인 실루엣의 미니멀한 매니쉬 룩을 나타냈다. 메이크업은 의상의 다크한 톤과 유사하게 컨투어링 메이크업을 하여 얼굴의 이목구비를 직각형으로 강조하였으며 상승형의 직각 아이브로우와 답한 스모키 새도우로 남성성을 나타냈다(그림 8).



〈그림 6〉 The row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7〉 Louis Vuitton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8〉 Tom Ford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9〉 Balenciaga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10〉 Max Mara  
(출처: <http://www.vogue.com>)



발렌시아가는 자기 몸 긍정 운동(The Body Positive Movement)에 동참하며 런웨이에서 다양한 나이, 성별, 연령에 따른 모델을 선보였다. 의상 역시 몸에 핏이 되지 않는 오버사이즈의 수트를 착용하여 움직임에 어떠한 제약을 주지 않고 편안하고 네추럴하게 의상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정의 성의 한계가 느껴지지 않는 젠더리스 패션을 나타냈다. 메이크업 역시 자신이 가진 고유의 미에서 벗어나지 않고 특정의 뷰티 디자인적 요소를 취하지 않는 노메이크업을 하였다. 헤어는 남성형 포마드 라인의 가르마를 타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쓸어 고정하여 연출하였다(그림 9).

막스마라라 중성의 대표적인 무채색인 울 그레이 컬러를 활용한 의상을 선보였으며 셔츠, 베스트, 자켓, 반바지, 그리고 넥타이까지 모두 남성적인 룩을 상징하는 의상들을 매치하여 양성성을 나타냈다. 메이크업은 의상과 마찬가지로 중성 컬러인 그레이를 활용하여 새도우를 하였으며 차가운 한색으로 인해 여성의 곡선형 아이홀에 구애받지 않고 눈매가 확장되어 보이는 효과를 나타냈다. 입술은 반대로 경연감이 강한 톤 다운된 블랙 레드의 색상을 사용하여 입술의 윤곽선을 또렷하게 나타내어 강한 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냈다(그림 10).

### 3. 관능성

관능미는 인간의 에로티시즘, 즉 성적 매력을 표출하는 이미지의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신체의 볼륨과 곡선을 육감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 패션에서 관능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신체를 직접적으로 노출하여 신체의 관능적인 부위를 강조하는 방법, 신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거나 감싸는 은밀한 방법,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 라인을 강조하여 시각적인 인지와 연상하는 심리작용을 불러일으키는 방법 등이 있으며 소재는 조젯이나 오간자, 쉬폰, 레이스를 활용하며 시스루를 통한 신체의 노출을 나타내며 란제리 룩의 형태로도 표현된다.

구찌는 상의와 하의의 상반된 소재를 사용함과 동시에 팬츠 형태는 여성 신체를 가리고 상의의 오간자는 여성의 신체를 과감하게 드러냄으로써 성의 이중적 요소를 한번에 나타냈으며 여성의 특징 신체부위를 상징화 하였다. 메이크업은 다듬지 않은 풍성한 눈썹의 슬과 결을 극대화하여 원초적이며 남성성이 강한 연출을 하였고 인조속 눈썹을 눈의 위와 아래에 뒤집어서 부착하여 눈매를 더욱 극대화하고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눈의 직선형의 형태를 상하로 확대하여 여성스러움 보단 원초적인 관능미를 나타냈다(그림 11).

생로랑은 차이나 벵의 직선과 사선의 주름이 강조된 시스루 블라우스에 런웨이의 에펠탑 조명과도 같은 스팅글이 박힌 블랙 슬렉스의 매치로 중성적이면서도 여성의 신체 중 가슴을 상징화하여 관능적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시스루 소재에 남성복과 같은 직선형의 팬츠를 매치하여 젠더의 이중적 요소를 잘 드러내고 있다. 원초적이지만 특정의 성의 강조가 아닌 미니멀을 표방하는 룩의 메이크업으로 색조를 완전히 배제한 뉴트럴 톤의 메이크업을 나타냈다(그림 12).



〈그림 11〉 Cucci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12〉  
Saint Laurent

〈그림 13〉  
Helmut Lang

〈그림 14〉  
Alexander McQueen

〈그림 15〉 Versace  
(출처: <http://www.vogue.com>)

(출처: <http://www.vogue.com>) (출처: <http://www.vogue.com>) (출처: <http://www.vogue.com>)



헬무트랭은 자켓과 밴드형 스커트의 언발란스한 무드를 연출하였으며 자켓 부분의 어깨띠로 형태의 고정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반대로 저지 소재의 이너와 밴드형 주름 스커트의 편안함은 믹스매치로 인한 스타일리쉬함을 강조하였으며 이너의 절개선에 따른 일부 신체의 노출과 배꼽이 강조되는 의상은 관능미를 더하고 있다. 메이크업은 전체적으로 미니멀하나 레드 브라운 아이라이너를 포인트로 아이홀 전반을 감싸듯 아이라인을 그려 넣었고 캣츠아이의 상승형 아이라인을 완성하여 미니멀하며 깔끔한 포인트를 나타냈다(그림 13).

알렉산더 맥퀸은 직선형의 테일러스 수트에 허리 부분의 절개선을 사선으로 넣어서 여성의 잘록한 허리 라인을 강조하였으며 움직임에 따라 인체의 라인을 드러내어 시각적인 인지와 함께 연상 심리 작용을 불러일으켰다. 머리는 5:5의 정교한 가르마지만 잔머리를 불규칙적으로 내려 정돈되지 않은 스타일의 연출을 하였으며 앞머리를 비대칭으로 묶고, 꼬고, 엮어서 정제되어 있지 않은 느낌을 연출했다. 피부는 깨끗하고 뉴트럴하게 표현하였으며 블러셔는 광대의 음영과 자연스러운 홍조 정도를 나타내었고 립은 뉴트럴 톤으로 마무리하였다. 눈썹은 두껍고 정교한 직선으로 표현하여 의상과 함께 강인한 여성상을 나타내는 선의 강조를 중점적으로 시도하였다(그림 14).

베르사체는 가슴라인이 절개된 트로피컬 패턴의 리조트 룩 드레스에 박시한 민무늬의 블랙 오버 솔더의 탑을 레이어드 하여 젠더리스 스타일의 절충성과 함께 신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관능성을 나타냈다. 메이크업은 전체적으로 윤기가 나는 골드 쉬머의 베이스에 여성의 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핫핑크 컬러를 포인트 겸 하이라이터로 사용하여 눈 앞머리에 표현하였으며 올백의 웨트 헤어에 컬이 들어간 잔머리의 연출로 관능미를 더했다(그림 15).

#### 4. 과장성

과장성은 물체의 구조나 형상을 극대화함으로써 사실주의처럼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지 않고 미의식을 통하여 주관적이고 창조적으로 재형성하여 원래의 모습을 강조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식에서의 과장은 형태적인 확대와 축소, 변형에 의한 왜곡과 신체적 제약을 주는 물리적인 과장을 뜻하며 시각적인 위압감이나 선과 색의 배열 작용으로 인하여 착시 효과를 나타내는 복식, 길이의 확대에 의한 수직적 과장 및 면적의 확대에 의한 과도한 실루엣 역시 과장형 복식의 요소로 해석할 수 있다.

구찌쇼에 등장한 구속복(straitjacket)에 나타난 의미는 현대사회의 억압받고 조정당하는 이들을 극단적으로 형상화 한 것으로 권력에 따른 사회적 규범과 정체성을 억압당하는 현실을 비판하였으며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항의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소매의 기장 확대로 인한 디자인은 인체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여 기하학적인 형태를 나타내며 수직과장을 통하여 주관적 요소를 표현하는 것이다. 피부는 윤기 없고 창백하게 마치 자기 표현을 최대한 제거한 듯 보이지만 의상과 동일하게 과장된 눈썹은 주관적인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다. 상하 뿐만 아니라 좌우로도 눈썹은 과장된 면적을 나타내었으며 미적 기준을 뛰어넘는 눈썹 모의 양과 털의 상승화된 방향성으로 여성성과 연령에 대한 선입견을 제거하고 중성적인 느낌을 전달한다(그림 16).

랑방은 자켓보다 큰 오버핏의 팬츠, 벨트의 기장, 자켓에 달린 체인 악세사리, 모자의 넓은 챙, 등에서 과장성은 의상과 인체의 전체적인 균형을 깨뜨려 기존의 관념을 의도적으로 파괴한 디자인을 나타냈다. 메이크업은 피부톤과 매우 유사한 톤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얼굴에 나타난 색조를 커버하지 않고 다크서클과 홍조와 같은 부분을 최소한으로 표현하였다. 질감 또한 매트하게 마무리하여 일상적이며 꾸미지 않은 듯한 연출을 함으로써 과장성이 나타난 의상에 더욱 원초적인 자연스러움으로 매치하여 과한 느낌을 최소화 하였다(그림 17).

메종 마르지엘라는 행진(Defile)을 주제로 하여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간호사, 군인, 해군 등의 복장에서 영감을 받은 복장들을 존 갈리아노의 맥시멀한 해체주의로 재해석한 디자인을 하였다. <그림 18>은 여성의 신체에 넓은 오버핏의 어깨선의 자켓과 소매부분의 이중 과장을 통하여 상체를 더욱 부각시키고 ‘행진’에 걸맞는 강인한 여



〈그림 16〉  
Gucci

〈그림 17〉  
Lanvin

〈그림 18〉  
Maison Margiela

〈그림 19〉  
Vera Wang

〈그림 20〉  
Jill Sander

(출처: <http://www.vogue.com>) (출처: <http://www.vogue.com>) (출처: <http://www.vogue.com>) (출처: <http://www.vogue.com>) (출처: <http://www.vogue.com>)

성상을 나타냈다. 메이크업은 자연스러운 피부톤에 햇볕에 열게 그을린 선키스트 블러셔의 포인트로 다소 경직되고 과장된 의상의 컨셉에 자연스럽게 어러보이는 요소를 나타냈다. 선키스트 블러셔는 수직에서 내리 쬐 자외선을 그대로 받아 광대와 콧잔등에 넓은 면적인 느낌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18).

베라왕은 소매 뿐만이 아니라 스커트 역시 머메이드 라인의 절개를 무릎 위쪽, 허벅지의 중간 지점에서 시작하여 상하의 모두 이중적인 수직과장의 형태를 나타냈으며 그 결과 전체적으로 인체를 길어 보이게 하는 과장된 효과가 나타났다. 의상과 함께 아이 메이크업을 상하, 좌우로 확장하여 표현하였고 푸른색의 브라이트한 톤을 사용하여 눈매가 시원하게 확대 되어 보이게 함과 동시에 아이존을 하이라이팅 하여 그 부위의 돌출을 통한 눈매의 부각을 나타냈다(그림 19).

정제된 럭셔리 하이패션의 스트릿을 보여주는 질센더는 과장된 실루엣을 가진 셔츠를 꾸준히 선보여 왔다. 그림과 같이 포멀한 스트릿에 소매 부분을 수직 과장하여 단순한 스트레이트 디자인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루즈 핏의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나타냈다. 메이크업은 깨끗하고 군더더기 없는 피부표현에 자연스러운 눈썹을 그리고 오로지 립메이크업에만 포인트를 두었다. 질감은 피부와 동일하게 에어리즘이 느껴지는 벨벳으로 빈티지하며 차분한 느낌을 더했다(그림 20).

## 5. 유희성

유희성은 '실제의' 또는 '일상적인' 생활이 아닌

자유스러운 것을 특징으로 기존의 관념을 탈피하는 의외성을 나타내며 비대칭적 구조와 왜곡, 변형, 모순, 부조화를 통해 의복에 재미와 즐거움을 부여하고 신선함과 놀라움을 나타낸다. 또한 다채로운 색상과 함께 장난감과 같은 오브제를 사용하여 유아적인 이미지도 보여줌으로써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독창적인 개성을 연출한다.

크리스토퍼 케인은 의상을 평면의 실루엣으로 제작하여 여성의 인체를 직사각형의 백에 넣은 것과 같은 느낌을 줌과 동시에 빛나는 소재를 사용하여 움직일때 마다 인체의 볼륨이 드러나도록 하여 평면성에 입체성을 더했다. 이처럼 의복의 선과 면을 모두 생략하여 일반적인 옷의 구조에 대한 기존의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므로써 의외성과 함께 하이패션의 룩을 완성하였다. 메이크업은 의상의 소재와 상응하는 쉬머한 베이스와 함께 글로시한 질감의 반짝이는 아이 메이크업을 하였으며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찍어내듯이 퍼바르지 않은 얼룩진 비튼립(Bitten lips)을 완성하여 얼룩덜룩 해보이는 무심경한 메이크업을 표현했다(그림 21).

마크제이콥스는 마름모꼴 문양이 청바지의 한쪽 다리 부분만 숏팬츠로 제작하여 비대칭의 구조를 나타내어 부조화의 미를 나타냈으며 스웨터에 선반에 올라간 고양이의 이미지를 통해 유아적이고 귀여운 유희 충동적 발산을 나타냈다. 반면 메이크업은 직선의 수평형 아이세도우 기법으로 답한 그레이를 채색하여 눈매를 더욱 깊고 핑키하게 연출하였으며 눈의 곡선을 사각의 직선형의 형태로 고정시켜 매니쉬한 느



〈그림 21〉 Christopher Kane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22〉 Marc Jacobs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23〉 Moschino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24〉 Jill Sander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25〉 Jeremy Scott (출처: <http://www.vogue.com>)

김을 연출하였다(그림 22).

모스키노는 피카소의 큐비즘을 오마주하여 평면화한 의상에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 넣어 착시효과를 유발하는 실험적 의상을 제작하였다. 여성의 인체의 볼륨감과 곡선을 배제한 평면적인 의상의 소재를 캔버스로 활용한 이질적인 시도에 입체적인 여성의 신체를 부각하여 일상규칙의 위반과 해방성, 그리고 자유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메이크업 역시 얼굴을 전체 평면화한 캔버스처럼 색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입술만 네온컬러를 활용하여 마치 그림을 그리듯 전체의 립 라인을 또렷히 살려서 입술의 평면적 느낌을 살린 풀립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이와 함께 가르마를 탄 헤어에도 화이트 페인팅을 부분적으로 채색하여 오마주한 피카소의 명화와 유사한 표현기법을 드러냈다(그림 23).

질샌더는 스트라이프 문양의 맥시 원피스를 세부적인 선과 면을 생략하여 일반적인 드레스의 실루엣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시켰으며 상하의의 절개를 취하지 않고 스트라이프의 문양을 교차하여 착시효과적인 요소와 함께 유희성을 나타냈다. 메이크업은 의상의 톤에 맞추어 얼굴 전체의 음영감을 살린 컨투어링 메이크업을 하였으며 평면의 의상과 반대로 얼굴의 입체적인 요소를 살려서 연출하여 독특한 의상에 포명한 룩을 완성하였다(그림 24).

Neon Rock Opera를 주제로 한 제레미 스카트의 2020년도 컬렉션은 80년대의 복고적 감정에 SF요소를 키치하게 재해석하였다. 〈그림 25〉과 같이 속옷을 겉옷의 오브제로 활용하여

일상적이지 않은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규칙의 위반과 외설로 하여금 즐거움의 본질로부터 해방과 자유의 발산을 나타냈다. 광이 나고 하얀 피부톤에 언더에서 연결된 상승형 아이라이너는 사선이 주는 울동성을 더해주고 눈썹과 눈앞머리를 시작으로 컷대까지 직선형으로 연결된 네온 컬러의 새도우는 형형색색의 핑키한 가발과 함께 80년대의 핑크룩을 나타냈다.

## 6. 역사성

역사성은 복고주의 패션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서 고대에서부터 1980년대까지의 서양 복식을 기반으로 하여 과거 복식의 역사적인 요소들을 재현하거나 응용하는 방식으로 시대의 흐름에 어울리게 재정립한 과거성을 새롭게 나타내는 복식의 유형이다. 이와 같은 역사성은 과거의 시대적인 특징을 표현하는 의상을 의미하며 변형된 역사적인 사실과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하고 동서양의 민족적인 복식을 포함한다. 복식에서 나타난 역사적 특성으로는 부분적으로 의복에 변화를 주어 이전 시대의 복식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을 통한 재창조를 의미한다.

구찌의 앰파이어 실루엣의 맥시 드레스는 구찌의 브랜드 마크를 의상에 전체 프린트하여 역사성을 더했으며 빨간 삭스탑과의 매치로 인해 복고적인 이미지를 완성시켰다. 주조색인 딥톤의 브라운과 옐로우가 고급스러운 클래식 룩의 요소를 더하며 차이나 넥의 형태로 동양적 특색을 나타냈다. 메이크업은 색조를 자제하고 미니멀하게 마무리했으며 틴티드 육각 선글라스



〈그림 26〉  
Gucci

〈그림 27〉  
Stella Jean

〈그림 28〉  
Louis Vuitton

〈그림 29〉  
Tory Burch

〈그림 30〉  
Christopher Kane

(출처: <http://www.vogue.com>) (출처: <http://www.vogue.com>) (출처: <http://www.vogue.com>) (출처: <http://www.vogue.com>) (출처: <http://www.vogue.com>)

의 착용으로 복고적 스타일링을 완성했다(그림 26).

스텔라진은 파키스탄 여행 시에 영감을 받은 아시아의 오리엔탈적인 요소를 컬렉션에 담아서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하였다. 다소 포멀한 스트라이프 점프수트에 원색의 벨트와 짜임으로 이뤄진 볼드한 목걸이의 착용으로 오리엔탈적인 요소를 더했으며 다리에 키크가드의 착용으로 활동성을 갖춘 스포티함과 건강미를 나타냈다. 메이크업은 피부톤을 보정하지 않은 옐로우 베이스의 네추럴 톤에 쉬머한 카멜 컬러의 아이섀도우를 눈 두덩이에 넓게 퍼발라 탁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음영감을 주었으며 립은 뉴트럴 톤의 로즈 핑크 계열로 자연스럽게 연출하였다. 눈썹은 결을 살린 두꺼운 일자형 아이브로우로 노마드적인 야생미를 표현함과 동시에 볼에 연지와도 같은 붉은 점을 찍어 동양의 토속적인 이미지를 더했다(그림 27).

루이뷔통은 복고적인 70년대의 디스코룩을 완성하였다. 셔츠의 긴 칼라와 싱글 브레스티드 자켓(Single breasted jacket)의 단추의 위치를 높게 장착하여 잘록한 허리라인을 잡아주고 자켓의 길이를 길게하고 플라워 오브제를 활용하여 복고적인 느낌을 더했다. 메이크업은 하얗고 파우더리한 피부에 아이메이크업은 최소화하고 입술의 아웃라인을 잡아 글로시한 질감의 레드 계열로 립 포인트 메이크업을 했다. 입술 구각의 톤 다운엔딩한 마르살라 컬러를 입술 중앙으로 그라데이션하여 입술을 더욱 볼륨감 있고 글래머러스하게 표현 것이 특징이며 70년대의 복고적 감성을 나타냈다(그림 28).

토리버치는 젠더리스 패션에서 엿볼 수 있는 허리라인이 잡히지 않은 숏자켓에 어깨의 견장과 금속단추의 포인트와 함께 소매선의 박음질과 가슴선의 양 포켓 디자인에서의 밀리터리룩의 역사적 특성을 나타낸다. 메이크업은 피부톤과 유사한 뉴트럴 톤에 음영감을 넓게 준 스퀘어형의 직선형 아이홀의 형태를 잡아주고 경연감이 큰 블랙 컬러로 눈썹의 라인을 선명하게 그려주어 강인한 여성상을 표현하였다. 머리 또한 직선형 헤어라인을 부각시키는 가르마를 타서 남성스러운 느낌을 강조하였다(그림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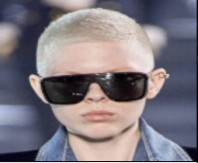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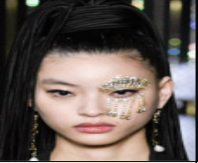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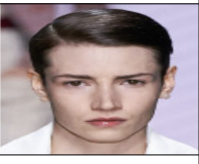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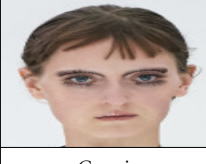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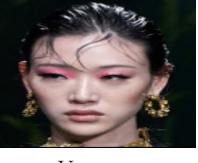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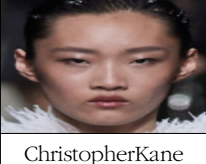









크리스토퍼 케인은 새틴 소재의 점프 슈트 전신에 아르누보 문양을 넣어 에스닉풍 의상을 고전적으로 표현하였으며 퍼프 셔링의 볼륨감이 클래식한 룩의 완성을 더했다. 반면에 세로의 직선형 절개와 일자형의 허리 라인에서 중성적인 젠더리스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메이크업은 눈썹의 결을 강조한 세미 스모키를 직선형으로 표현하였으며 머리는 웨트한 질감의 올백 스타일로 이마의 직선을 부각시켜 중성적인 메이크업을 하였다(그림 30).

#### IV. 결론

오늘날의 성의 개념은 남녀의 평등화를 뛰어넘어 성에 관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가고 있으며 나아가 자기 몸 긍정 운동과 같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현상과 함께 자기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성의 다원화 및 다양화 현상은



〈표 3〉 컬렉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패션에 따른 메이크업(출처: <http://www.vogue.com>)

특성	이미지				
절충성					
	Etro	Ton Ford	Saint Laurent	Area	MM6
양성성					
	The row	Louis Vuitton	Tom Ford	Balenciaga	Max Mara
관능성					
	Cucci	Saint Laurent	Helmut Lang	AlexanderMcQueen	Versace
과장성					
	Cucci	Lanvin	MaisonMargiela	Vera Wang	Jill Sander
유희성					
	ChristopherKane	Marc Jacobs	Moschino	Jill Sander	Jeremy Scott
역사성					
	Gucci	Stella Jean	Louis Vuitton	Tory Burch	Christopher Kane

패션 조형예술에도 반영되어 성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부정하고 경계를 허문 새로운 융합의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젠더리스 스타일의 복식에서도 여성과 남성을 구분 짓지 않고 각각의 요소를 융합하여 성의 경계를 초월한 파격적이고 자유스러운 패션디자인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은 절충성, 양성성, 관능성, 과장성, 유희성, 역사성으로 분류됐으며 2020 S/S의 총 85개의 컬렉션 중 젠더리스의 패션 특성이 나타난 35개의 컬렉션과 139개의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 중 절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희성이 가장 낮게 도출됐으며 각 표현 특성에 따른 디자이너의 작품은 절충성, 관능성, 역사성에서 생로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성성에서는 메종 마

르지엘라, 과장성과 유희성은 발렌시아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0 S/S 컬렉션에 나타난 절충성은 패션 디자인의 형용사적 이미지의 부조화스러운 결합, 이질적인 소재의 배색,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 혼용, 하위문화와 고급문화의 혼합을 통해 표현되었다. 메이크업은 특정 이미지에 편중되지 않고 두 가지의 부조화스러운 대상의 병치를 수용하기 위해 색조를 배제하고 최소한의 피부메이크업을 시도하였거나, 뉴트럴한 피부톤에 선글라스와 파츠 같은 악세서리를 활용하여 미니멀한 포인트를 표현했다.

둘째, 젠더리스 스타일에 나타난 양성성은 여성 신체의 볼륨감과 곡선을 감추는 스트레이트한 오버사이즈의 실루엣과 남성적 의상인 자켓, 셔츠, 베스트, 와이드 팬츠, 넥타이를 활용했으며 컬러는 무채색의 그레이와 블랙이 주조색으로 분석됐다. 메이크업은 여성성을 최대한 배제하였으며 컨투어링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여 이목구비를 보다 또렷하게 하였고 눈썹과 입술을 직선형으로 나타냈다. 또한 닷한 컬러의 색조를 눈과 입술에 활용하여 경연감을 높여서 강인한 이미지를 표현했다.

셋째, 컬렉션에 나타난 관능성은 시스루 소재의 활용하여 신체를 직, 간접적으로 노출하여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상징화하였으며 의상에 절개선을 넣어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특정 부위의 라인을 드러내어 시각적인 인지와 함께 연상 심리 작용을 나타냈다. 메이크업은 다듬지 않은 눈썹의 풍성한 술과 곁을 극대화하여 원초적이며 강인한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붉은 난색계열의 레드 브라운이나 핑크컬러의 아이메이크업으로 관능미를 표현했다.

넷째, 젠더리스 스타일에서 나타난 과장성은 의상과 인체의 전체적인 균형을 깨뜨려 기존의 관념을 의도적으로 파괴한 디자인을 표현했으며 특정 부위의 확대를 통하여 기하학적인 형태를 나타냄과 동시에 강조하는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메이크업은 노마드적인 자유를 표방하는 선키스트 블러셔와 주근깨 등의 색조의 활용으로 다소 과장되고 경직된 의상에 원초적인 자연스러움을 매치하여 과한 느낌을 최소화한 것으

로 나타났다.

다섯째, 2020 S/S 컬렉션에서 나타난 유희성은 의복의 선과 면을 모두 생략하여 일반적인 옷의 구조에 대한 기존의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남으로써 의외성을 나타냈으며 비대칭을 통하여 부조화의미를 표현했다. 또한 장난감과 애니멀 이미지의 활용으로 유아적이고 귀여운 유희 충동적 발산을 나타냈다. 메이크업은 의상의 유희적인 요소와 더불어 눈이나 입술에 독특한 질감의 아이 새도우나 립 포인트 메이크업을 하였으며 젠더리스 패션의 특성 중 메이크업의 표현 방법이 가장 자유로우며 실험적인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젠더리스 패션에서 나타난 역사성은 아시아의 오리엔탈적인 요소를 담아 지역적인 특색이 반영된 디자인, 또는 70년대의 디스코룩과 같은 시대적 배경이 반영된 복고적인 디자인을 나타냈으며 밀렉터리룩과 같은 역사적 특성을 지닌 룩으로 분석됐다. 문양으로는 아르누보 양식의 에스닉 풍 의상과 난색계열의 닷한 컬러에 골드 포인트가 들어간 의상을 볼 수 있었다. 메이크업은 눈썹의 곁을 살린 두꺼운 일자형 아이브로우로 노마드적인 야생미와 함께 연지를 짙어 동양의 토속적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글로시한 질감의 아웃 라인의 볼륨감 있는 레드 립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복고적 감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젠더리스의 패션 경향과 함께 메이크업의 조형적 특성을 세분화하여 분류함으로써 뷰티코디네이션의 미적 요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조형적 요소에 관한 다양한 시각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젠더리스 패션은 시대뿐만 아니라 성에 관한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 큰 영향을 받으며 끊임없이 재정립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개의 성이 충돌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요인보다는 기존의 성적 요소를 감하여 제 3의 성으로 나아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젠더리스의 다양한 특성으로 구축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젠더리스에 나타난 뷰티디자인적 요소 중 메이크업의 조형적 특성이 중점으로 연구된 실정이라 헤어 및 네일디자인에 관한 사례 분석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헤어와 네일 디자인에서 보다



심층화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젠더리스 스타일은 거의 패션 디자인에만 한정되어 연구되어지고 있다. 젠더의 개념이 점차 선진화되고 확대되어짐에 따라 보다 포괄적인 뷰티디자인의 조형적 요소를 제공하여 다양한 시각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김경옥, 금기숙. (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36, 239-262.
- 김규연, 하지수. (2019). 성소주자의 복식을 통한 젠더정체성 표현. *한국패션디자인학회 춘계학술대회*, pp.98-99.
- 김민자. (2008). *복식미학강의*. 서울: 교문사.
- 김선영. (2006). Jean Paul Gaultier의 Haute Couture 작품에 표현된 미적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4(4), 1-9.
- 김지혜. (2016).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스타일의 표현 특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 이연희. (2016). 현대 여성 컬렉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스타일의 표현 특성. *복식문화학회*, 24(6), 903-919.
- 박은혜, 김유라, 김현화, 신은선, 한희정. (2017). 젠더퀴어 현상에 따른 패션표현의 변화, *한국패션디자인학회 추계학술대회*, p.130
- 박선옥. (2019). *퍼스 기호학 관점에서의 현대 젠더리스 패션 스타일 표현 특성 연구*.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광숙. (2018). 현대 남성복 컬렉션에 표현된 젠더리스의 특성 연구. *인문사회*21, 9(4), 1543-1556.
- 양수현. (2015). *타셈 싱(Tarsem Singh)영화의상에 나타난 매직리얼리즘 특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홍식. (2007). 국내의류업체의 패션상품에 나타난 젠더리스 연구. *한국문화학회지*, 10(3), 57-72.
- 이기열, 강병석. (2007). 현대 패션의 과장된 인체 조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지*, 8(1), 399-407.
- 이연영, 변미연, 이인성. (2006). 현대 패션에 나타난 남성복 스타일 특성에 관한 연구: 메트로섹슈얼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2), 293-301.
- 임송미, 이미숙. (2003). 현대패션에 나타난 기호의 의미 분석: 1990년 이후의 패션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7(1), 84-100.
- 제프 프롬, 엔지 리드. (2018). *강소비권력 Z세대가 온대임가영 역*. 서울: 흥익출판사.
- 정홍숙. (2014).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최해주, 안은경. (2003).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53(2), 137-151.
- 패션엔. (2019. 9. 25), 자료검색일 2019. 11. 30, 자료출처 <http://www.fashion.com>
- 하지수. (1994). 현 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한국복식학회지*, 22, 71-83.
- 한승수. (2010). *과장형 복식이 신체에 미친 향에 관한 연구: 유행의 강제성을 중심으로*. 흥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aiser, S. B. (1990),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경춘사.
- UN 외교부. (2019. 10. 1). 자료검색일 2019. 11. 20, 자료출처 <https://mofakr.blog.me/221664842909>